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4
시와 음악 서문에 스미다	4
첨부파일(1)	4

시와 음악 서문에 스미다

작성일 2023.05.02 10:36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33

첨부파일(1)  서문2.jpg 5 hit/566.1 KB [다운로드](#)

10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강진고을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 '시와 음악 서문에 스미다' 성황

지난 24일 강진고을 카페 마루에서 100여 명의 관람객과 함께한 이번 프로그램은 '2023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행사의 일환으로, 매달 한 차례씩 11개 읍면에서 15회 개최된다. 지난 1월 13일 병영을 시작으로 현재 3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번 행사가 진행된 '서문'은 강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예부터 서문은 서사(西社)라 했고, 1919년 강진 독립만세운동 준비를 했던 곳이다.

주민 크리에이터 백경희 씨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김예솔(중앙초 2학년) 학생의 '물담에 속삭이는 햇발' 시 낭송으로 시작하여, 박복희(국악), 장만수(하모니카) 공

연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오대환 시인은 '모란이 피기까지' 시 낭송과 함께 '강진에 살았었다'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며 관객들과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악퓨전그룹 별달해크로(이주엽, 윤문영)가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이며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강진의 인문학적 향기가 더 널리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출연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준비에 큰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민 주도형 문학 프로그램을 발굴,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목록

GANGJIN

Web Contents

